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32호

2024.12.19.(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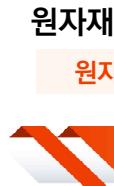


주요 공급망 이슈

- | | |
|--------|--------------------------------------|
| 미국·통상 | 美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 포함…생물보안법은 제외 |
| 미국·원자재 | 美 하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 3건 공개 |
| 미국·반도체 | 美,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영향 평가 발표…산업 의존도 高 |
| 일본·원자재 | 日, 구리·희귀금속 공급망 다각화·안정화 사업 적극 지원 |

주간 이슈 포커스

- EU·이차전지 EU, 역내 배터리 제조 지원 강화 계획 발표



II. 월간 공급망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중심으로



IV. 공급망 소식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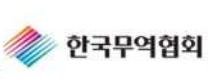
ELECS KOREA 2025 연계 K-그리드 수출상담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 포함…생물보안법은 제외

- ▣ 1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상·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 국방수권법(NDAA): 한 해 편성되는 美 국방부 예산을 편성·결정하는 법안

- ◆ 중국 드론대응법은 관련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해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며, 안보 위험 확인 시 美 연방통신위원회는 해당 장비와 서버를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대역폭 사용을 금지
- ◆ 동 법안에는 中 기업인 DJI, Autel Robotics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DJI는 美 드론 시장의 77%를 점유
- ◆ 한편 美 기업이 中 바이오·생명공학 기업과 거래 및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은 차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의안에 포함토록 재추진

핵심 키워드

드론대응법

국방수권법

출처: 美 하원 군사위원회('24.12.7), C&EN('24.1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원자재 美 하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 3건 공개

- ▣ 12.11일(현지시간)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발표

- ◆ 동 법안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관련 이중용도 수출 허가제 실시에 대응하여 美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
- ◆ 동 법안은 블랙매스(Black Mass)*를 포함, 핵심광물이 중국 등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관련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

* 블랙매스(Black Mass):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꼽힘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블랙매스

출처: Politico('24.12.1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90호('24.12.1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 반도체 美,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영향 평가 발표…산업 의존도 高

- ▣ 지난 11.6일(현지시간) 美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발표
 -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 기업의 44%가 자사 제품에 포함된 반도체의 출처 확인이 불가해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및 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
 - ◆ 또한 제품의 66%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해 부가가치는 낮으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의존도 문제가 부각
- ▣ 이에 美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을 통해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7년부터 특정 中 기업이 제조한 반도체 제품·서비스를 美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안을 시행
 - * 국방수권법(NDAA) 제5949조
 - ◆ 또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통상법 301조 적용 및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복잡한 벤류체인을 고려해 상품 전체가 아닌 반도체 부품에 한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핵심 키워드 | 레거시 반도체 | 반도체법

출처: 美 산업안보국(24.11.06),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90호(24.12.1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일본, 원자재 日, 구리·희귀금속 공급망 다각화·안정화 사업 적극 지원

- ▣ 12.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日 경제산업성은 구리·희소금속 신규 공급원 확보를 위해 '24년 추경예산에 3년간 1,597억 엔을 편성했다고 발표
 - ◆ 구리*가 日 정부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리의 안정적 수급이 목표
 - * 구리는 전선, 전기차(EV), 반도체 등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구리 사용량이 3.6배 많음
 - ◆ 동 예산은 아프리카에서 日 기업이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출자 시,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최대 75%까지 출자 지원
 - ◆ 현지 언론은 중국과 중동 광산개발회사가 아프리카에서 구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확보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 분석

핵심 키워드 | 구리 | 광산 프로젝트

출처: 일간공업신문(24.12.13), 일본경제브리핑 43호(24.12.16)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이차전지 EU, 역내 배터리 제조 지원 강화 계획 발표

- 1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역내 배터리 산업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전기차 배터리 중심 EU 혁신기금(IF)을 제안

EU 배터리 산업 지원 계획 개요

구 분	지원 내용
EU 집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혁신기금으로부터 'Invest EU' 프로그램에 대출 보증 형태로 2억 유로 추가지원 향후 3년간 EIB 벤처 대출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상용화 간 격차 해소, ▲배터리 시장실패 완화, ▲공적자금 활용 민간투자 촉진, ▲에너지 저장 공급망 구축 등 지원 역내 배터리 제조 공급망 중 기본 셀·팩 조립 등의 기술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되, 채굴 및 추출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럽투자은행 (E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4년 간 약 6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 역내 배터리 공급망 지원에 18억 유로 추가 투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소재·부품 제조·재활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 지원 정기 신청 절차를 거쳐 상업적·기술적 실행 가능성 등 프로젝트 적격 여부 평가
EU 혁신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20~'30년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창출한 400억 유로 상당의 수익을 활용, 저 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역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현황) 120개 프로젝트에 약 72억 유로를 지원한 상태로 최근 'IF23'에서 8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 480만 유로 추가지원 예정 (향후 계획) 'IF24' 공모에서는 ▲탄소중립기술,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수소에너지 역내 보급 가속화 등에 46억 유로 편성



핵심 키워드

혁신기금

탄소배출권거래제

출처: Euractiv('24.12.09), EU 경제통상 브리핑 83호('24.12.1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美, '25년부 중국산 텅스텐 관세 부과 발표

- ▣ 12.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컴퓨터 칩 제조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텅스텐 제품에 대해 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
- ⇒ 아울러 기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며 지난 9월 확정한 301조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2주)

비철금속 | 中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동 가격↑, 中 전기차 시장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동	8,478	9,165	8.1	8,954	9,055	1.1
니켈	21,474	16,940	△21.1	15,720	15,723	0.01
아연	2,647	2,753	4.0	3,081	3,091	0.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 재정정책·통화정책 확장 추진 발표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니켈) 中 전기차 시장 확대로 니켈가격 전주 대비 소폭 상승세 시현

⇒ 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4.11월 中 신에너지차(NEV)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7.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철강 |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6.82	△21.1	134.03	132.55	△1.1
원료탄	295.71	245.31	△17.0	202.90	204.80	0.9
철광석	119.32	110.59	△7.3	105.86	106.36	0.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 및 中 경기부양책 추진에 힘입어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유연탄) 러시아 연료탄 수출 관세 폐지 예정에 따른 공급량 확대 전망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2주)

희소금속

주요 리튬 생산기업의 증산으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08	△4.5	1,150	1,150	-
탄산리튬	35,697	12,734	△64.3	10,624	10,464	△1.5
수산화리튬	37,972	11,631	△69.4	9,415	9,514	1.1
코발트 (U\$/lb)	17.82	16.36	△8.2	15.13	15.01	△0.8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0,566	△21.1	232,500	226,700	△2.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5,576	△29.1	58,070	57,680	△0.7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주요 기업 생산량 확대 및 연말 전 수요 둔화로 탄산리튬 가격 하락세 시현**▣ (희토류) 중국이 미얀마 원료에 추가 통관료를 부과하며 교역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자석 공장 입찰가 하락 등으로 전주 대비 가격 하락세 시현**

에너지

中 경기부양책 기대, 美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원유 가격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12.1주	12.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79.84	△2.26	72.24	72.33	0.09
브렌트유	82.17	80.14	△2.03	72.19	72.81	0.62
WTI	77.60	76.01	△1.59	68.42	68.32	0.90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中 경기부양책 기대, ▲美 원유 재고량 감소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석유 시장 공급과잉 우려로 상기 상승압력 일부 상쇄

- ⌚ 12.9일(현지시간) 중국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5년 경제 기조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 실시를 강조하며 지급준비율 인하 및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등을 언급
- ⌚ 12.6일(현지시간) 美 상업 원유재고는 4억 2,195만 배럴로 전주 대비 142.5만 배럴 감소
-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월 월간보고서에서 OPEC+가 '25년 감산을 유지하더라도 95만 b/d 규모의 공급 과잉이 발생, '25.4월 점진적 증산 시 공급과잉 규모는 140만 b/d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

월간 공급망

◆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시장 진출 본격화로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자국 전기차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부과 등 정책 수정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본 보고서는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발간한 경제안보 Review 24-15호,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

1.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

▣ (수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중심의 빠른 초기 성장 이후 일시적 성장 정체 국면인 캐즘(Chasm) 단계에 직면

- ▷ 세계 전기차 판매증가율은 '21년 이후 지속 감소(102.6%'21)→61.5%'22)→33.4%'23)→20%'24, 전망) / '23년 글로벌 차량 판매에서 내연기관차 비중(82%)은 여전히 압도적(IEA, 2024)

▶ 특히, 주요 시장인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성장 정체 추세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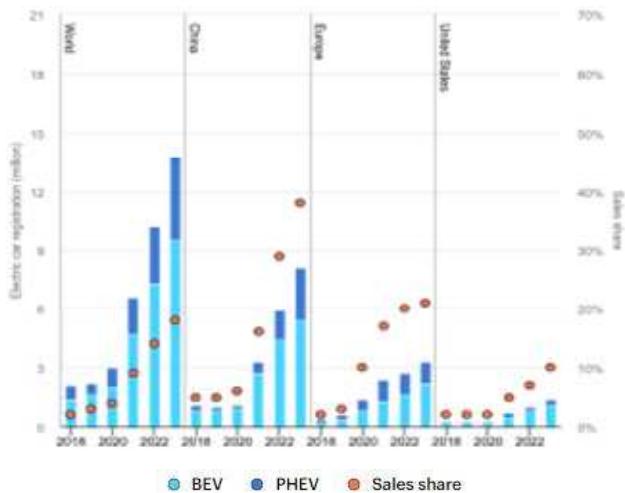
* 전체 차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 : (中) '21년 16% → '22년 29% → '23년 38% / (유럽) '21년 17% → '22년 20% → '23년 21%

- ▷ 충전 시설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미비, 내연차량 대비 비싼 전기차 가격 등의 영향으로, 3대(중국, 유럽, 미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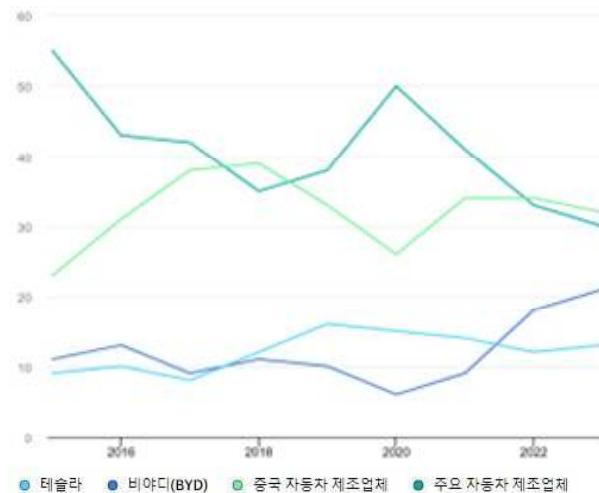
▶ '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 95%가 중국, 유럽, 미국에 편중*

* '23년 신규 등록 전기차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60%), 유럽(25%), 미국(10%) 순(IEA, 2024)

[그림1] 주요국 전기차 등록수 및 판매 비중 ('18년-'23년)



[그림2] 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5년-'23년)



[자료원]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4-15호

▣ (공급) 주요 시장(중국, 유럽, 미국)의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中 전기차량의 수출 확대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위기감 고조

◆ 美 업체(Tesla)와 전통 완성차 업체가 초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BYD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업체가 연이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며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23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점유율은 ▲中 BYD(20.5%), ▲美 TESLA(12.9%), ▲33개 중국 전기차 업체 32%(中 SAIC(6.5%), 中 Geely(6.4%) 등), ▲주요 차량업체 30%(獨 폭스바겐(7.1%)) 순 (그림2 참조)

◆ 中 전기차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 과잉, ▲중국 내 높은 보급률('23년 전기차 판매 비중 38% 달성)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성장 정체로 경쟁 과열에 직면 → 해외 진출 확대로 자구책 마련 중

▶ '23년 중국은 약 1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전년 대비 80% 성장) / 中 전기차 브랜드의 對EU 수출 비중은 '21년 이후 지속 증가세(2.4%'21→4.7%'22→7.6%'23))

2.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 (EU) 각국은 자국 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속도 조정 /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EU·중국 간 통상 마찰 지속

◆ (정책 동향)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기 중단 선언('23.12)*,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 ('30년→'35년) / 전기차 보조금 폐지('23), ▲(프랑스) EU외 국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23.12)

* 보조금 축소에 따라 '22년 독일 내 전기차 판매 비중 30% → '23년 25%로 감소(IEA, 2024)

◆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EU 역내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EU 차원의 관세 부과

▶ (관세 조치) EU 집행위는 '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및 회원국 투표 결과(10.29일)에 따라 BYD, Geely, SAIC 등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10%)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 부과(10.30일)

◆ (중국 대응)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WTO 제소, EU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대응 조치 본격화

▶ ▲EU산 브랜드 반덤핑 조사 착수(1.5일), ▲고배기량 승용차 추가 관세 인상 관련 의견 수렴(8.23일), ▲EU산 돼지고기·유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6.17일 / 8.21일), ▲EU의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8.9일) 등을 발표

[표 1] 전기차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 정책 동향

정책 유형		주요 내용
EU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종 상계관세 부과(10.30) : BYD, Geely, SAIC 등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최대 35.3%) (獨)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선언('23.12) (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23)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佛) 전기차 부품 생산, 조립, 완성차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점수 미달 시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사실상 EU 외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23.12)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30년→'35년) EU 차원의 '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은 유지 중(e-퓨얼은 적용 제외)

[자료원]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4-15호

▣ (美) 미국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 논의 확대 /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대비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보조금 정책 수정 논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재검토가 예상되는바,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

▶ 트럼프는 대선 당시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IRA 등) 재검토 및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 /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 산업 일자리 상실 및 전기차 보급에 따른 중국 의존도 확대 주장

* 트럼프 러닝메이트 밴스 부통령 후보는 '23년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내연기관 자동차에 지급하는 내용의 Drive American Act 법안 발의

◆ (관세) 美 시장에서 中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에 근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100%) 부과('24.9.27)

▶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핵심 광물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신규 포함 →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 전체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 관세 부과*

* 단, 시행 시기는 중국 외 지역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24년, '25년, '26년)

▶ 관련하여,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100% 관세 부과('24.10.1).

[표 2] 전기차 관련 품목 대중 관세 부과(301조) 주요 변경 사항

분류	품목	시행 시기	관세율
기존 대상	전기차(Electric vehicles)	'24년	25%(현행) → 100%(변경)
	배터리 부품 (Battery parts, non lithium-ion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lithium-i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4년	7.5%(현행) → 25%(변경)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ion non electrical vehicle batteries)	'26년	7.5%(현행) → 25%(변경)
신규 추가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	'26년	
	기타 핵심 광물(Other critical minerals)	'24년	0%(현행) → 25%(변경)
	영구자석(Permanent magnets)	'26년	

[자료원]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4-15호

▣ (中)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 내 전기차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 최근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계의 가격경쟁 및 통합이 강화되는 단계이나,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지속

▶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완성차 업체의 신에너지차(NEV) 의무생산 규정 강화,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지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생산 확대 정책 발표 등

[표 3] 중국 전기차 관련 정책 추진 동향

정책 유형	주요 내용
중국	판매 비중 설정
	· '27년까지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량 판매 비중 45% 달성 (국무원,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 방안('23.12.27))
	세제 정책
	· 신에너지 차량(NEV)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23.6.19.) ('25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27년까지 연장 / 구매된 차량의 구매세 50% 감면)
수출 지원	· 신에너지차 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 발표('24.2)를 통해 전기차 업체 대상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외환 거래, 위안화 결제 등 지원
	· 지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생산량 확대 등 산업 육성 정책 지속
기타 정책	· 광동성 정부, '25년까지 NEV 300만 대 생산 / 충전소 21만 개 설치 계획 발표 ('24.1.18))
	· 허난성 정부, NEV에 대한 국가세 면제 이외에 구매 보조금 5% 추가 지원 · 상하이시 정부, '24년 공공 전기차 충전소 1만 개 건설 추진 등)

[자료원]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4-15호

▣ (신흥시장)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 중국 등 해외 업체의 자국 시장 진출에 개방적 정책 유지 → 최근 동남아시아,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확대

◆ (태국) '30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의 30% 전기차 전환 계획 추진 / 국내 배터리 제조 보조금, 수입세 및 소비세 인하 정책 추진

- ▶ 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4년 내 2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Bangkok Post, '23.10.26)
- ▶ 태국 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따라, BYD, SAIC 등 中 전기차 업체의 태국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며 최근 태국 내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

* '23년 태국 전기차 신규 등록 수는 8배 증가(전체 차량 판매 중 10%를 초과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해 ▲사치세,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추진

-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인니에 대규모 투자 계획(약 1조 7천억 원) 발표 → 인니 정부는 투자 예정인 전기차 업체에 관세와 사치세 면제 혜택 제공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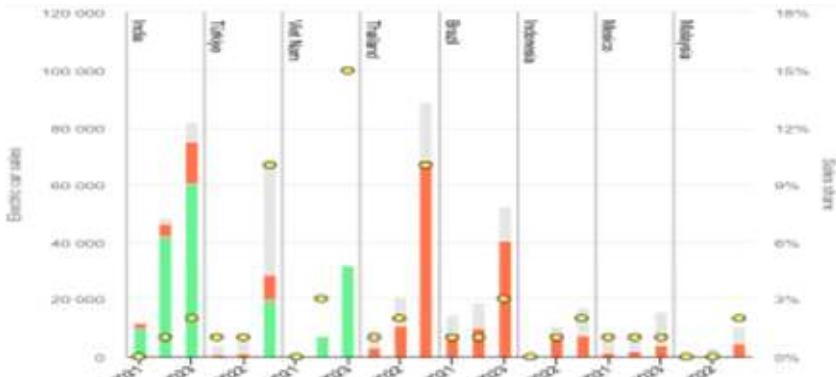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전기차 제조 투자기업 세금 감면, '27년까지 현지 조립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25년까지 전기차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정책 추진

- ▶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 '23년 전기 자동차 등록이 3배 이상 증가 / 주요 전기차 업체(벤츠, 테슬라, BYD 등)의 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각 국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이 맞물려, ASEAN, 브라질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 단, 자국산 전기차 업체를 육성하는 일부 신흥시장(베트남, 인도 등)은 전기차량에 대한 높은 관세율 유지

[그림 3] 주요 신흥국에서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 및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21~'23년)



●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 ●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 ●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자료원]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4-15호

3. 시사점

▣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등 전기차 정책 수정 및 對中 관세 조치 등 관련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23년 기준 95%)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
- ▶ 특히, 미국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시 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국내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특히, 전기차 성장 둔화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등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전기차 수요에 대부분 의존(약 80%)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산업연구원, '24.5.31.)

▣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EU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와의 경쟁 확대 가능
- ▶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EU 역내 추가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 BYD, 장성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 /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24.4)
-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이 맞물려,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 中 기업이 공격적인 신흥시장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국내 업체의 신규시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국내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산 제품과 현격한 가격 격차로 인해 빠르게 국내 시장 점유 가능성
 - * BYD(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5%, '23년) 한국 진출 공식 선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격주로 발간하는 경제안보 Review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중심으로

작성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 반도체 시장이 반사이익을 수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도 다수일뿐더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며 최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가치사슬 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의 후공정 기술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1. 아세안 반도체 생태계 및 투자현황

▣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 반도체 시장은 반사이익 수혜 예상

◆ 미국은 2022년부터 수출관리규정(EAR),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확대

▣ 반도체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기업·정부 각종의 활발한 투자에 따라 수출이 지속 확대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對세계 반도체 수출액은 연평균 10.7%, 베트남은 27.3% 증가

* 주요국 대세계 반도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14→'22) : (중국) 9.9 (대만) 11.5 (한국) 9.3

▣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대세계 반도체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증가율%)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금액	CAGR	
말레이시아	389	353	348	415	546	535	569	679	880	10.7	850
싱가포르	917	842	808	882	904	842	955	1,237	1,351	4.6	1,172
베트남	24	47	69	93	101	152	185	194	208	27.3	-

[자료원] UN Comtrade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최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활발한 성장세 시현

◆ 미국의 대중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도 다수

*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이후 말레이시아 페낭 내 중국 기업은 16개사에서 55개사까지 증가 추정

◆ (말레이시아) 글로벌 주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후공정 공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3D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도 도입 예정

- ❶ (싱가포르) 웨이퍼 제조 및 장비 생산이 활발하여, 글로벌파운드리, UMC, VIS 등 파운드리 기업이 제조 시설을 확장 중
- ❷ (베트남) 한국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

▣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주요 반도체 기업 투자 사례

(단위: 억 달러)

국가	기업	투자액 합계
말레이시아	TF AMD(중), 마이크론(미), 인텔(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미), 심텍(한), 인피니언(독), ASE(대), 페로텍(일)	233
싱가포르	JCET(중)*, 글로벌파운드리(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미), 실트로닉(독), UMC(대), VIS(대), 소이텍(프), AST(일)*	214
베트남	삼성전자(한)*, 하나마이크론(한), 앰코(미), VDL(네)*	26

자료: Orbis Crossborder

주: 설비 가동 시기 '22년 이후 기준, 일부 기업(*)은 투자액 미공개

2. 아세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 인적 자원 환경, 지정학적 변화 등이 아세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 ❶ (강점) 동아시아 반도체 주요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해 물류·공급망 연결성이 뛰어남
- ❷ (약점) 웨이퍼 수입 후 조립·테스트·패키징을 통해 완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하는 구조로 공급망 자립이 어려움
- ❸ (기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립을 위해 중국 외 거점을 확보하려는 'CHINA+1' 구도 필요성 증대
- ❹ (위협) 아세안 반도체 산업 내 중국 기업의 비중이 상승할수록 미국의 對아세안 제재 도입 가능성도 증가

3. 우리 반도체 업계 시사점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아세안 지역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❶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또한 반도체 공급망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함
 -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아세안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국과의 맞춤형 연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분산

▣ 후공정 부문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도 후공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환이 요구

- ❶ 첨단 패키징 R&D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정부가 연계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함
 - 출처: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중심으로』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공급망 소식통

◆ ELECS KOREA 2025 연계 K-그리드 수출상담회

작성 KOTRA 해외프로젝트실



신청 바로가기

ELECS KOREA 2025 연계 K-그리드 수출상담회

'25.2.12.(수) ~ 2.13.(목) 10:00~18:00

KOTRA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일렉스 코리아 2025와 연계하여 수출상담회를 추진합니다.
해외 약 30여개 바이어가 방한하여 상담에 참여할 예정으로,
국내 기업의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기간/장소

'25.2.12.(수)~13.(목) / 코엑스 B홀

규모 [국내] 100개사, [해외] 30개사

내용

K-그리드 분야 해외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1:1 상담 추진

상담분야

발전기자재, 송·배전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ESS, 원전 등

추진방식 바이어 별 부스 방문 상담

지원사항

상담회 통역, 국내기업 참가비 무료,
마케팅 후속 지원

참가 안내

참가대상

에너지(전력, 발전플랜트, 원전) 등 분야
국내 제조기업

* 전시회 미참여 국내기업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5.1.14.(화)

신청방법

홈페이지(elecskoreameeting.com)를
통해 참가 신청

향후 일정(추후 변동 가능)

(~1.31) 국내기업, 바이어간 상담 매칭

(~2.5) 최종 상담 스케줄 확정 및 공유

(2.12~2.13) 수출상담회 추진

문의처 | KOTRA 인프라 에너지산업팀 02-3460-3265 / 7489 green@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4.12.17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2/13	12/16	12/17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433.00	1,435.00	1,438.90	0.27	11.72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431.20	1,432.90	1,436.80	0.27	11.66
₩/CNY	181.44	181.37	187.56	197.17	197.12	197.44	0.16	8.86
₩/¥100	945.56	912.25	921.19	937.40	933.39	933.93	0.06	2.38
¥/U\$	133.73	141.19	145.03	152.87	153.74	154.07	0.21	9.12
U\$/EUR€	1.0617	1.1105	1.1077	1.0460	1.0518	1.0498	△0.19	△5.47
CNY/U\$	6.9630	7.1092	7.0934	7.2767	7.2797	7.2849	0.07	2.47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61.3원, (₩/¥100) 900.7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2/16	12/17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4.14	73.54	△0.6	3.2	△3.5	
					△0.8%	4.6%	△4.6%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6.00	105.35	△0.7	8.0	△35.2	
					△0.6%	8.2%	△25.0%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932.00	8,851.50	△80.5	1039.0	375.5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43.00	2,497.00	△46.0	428.5	161.5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590.00	15,380.00	△210.0	△505.0	△920.0
					△1.3%	△3.2%	△5.6%	

▣ 반도체

구 分	'21년	'22년	'23.12월	'24.10말	'24.11말	12/12	12/13	12/116	12월(~1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1	1.84	1.75	1.75	1.74	1.77
(%, YoY)	29.9%	△23.0%	△14.8%	23.4%	10.8%	0.3%	0.1%	△0.1%	1.4%
NAND(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75	6.68	6.64	6.64	6.63	6.64
(%, YoY)	14.7%	10.7%	△2.3%	5.4%	4.0%	3.8%	4.0%	3.9%	4.1%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分	12/30('22년)	12/29('23년)	11/29	12/6	12/13	전주비(12/6)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233.83	2256.46	2384.4	5.7%	35.5%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分	12/23('22년)	12/22('23년)	1/1	12/12	12/13	12/16	12/17	전주비(12/16)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055	1051	1071	1053	△1.7%	△49.7%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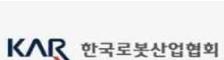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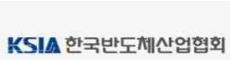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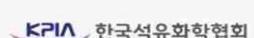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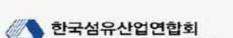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